

# 자기야! 팝콘먹으면서 '이터널스' 볼까

이터널스 실시간 예매율 73%나 마블 히어로물과 또다른 세계관 백인·아시안·히스패닉 캐릭터 다양 11월 월 관객 1000만명 기대감도

'1473만3600명 → 463만3600명 → 496만3600명.'

2019년과 지난해 그리고 올해 각 10월의 극장 관객수이다. 10월31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을 보면 2019년보다 1000만명 안팎 크게 줄어들었다. 감염병이 확산하기 직전인 지난해 1월만 해도 1684만3600여명이었던 월 관객수는 2월부터 현재까지 매달 1000만명에도 가닿지 못하고 있다. '모가디슈' '인질' '싱크홀' 등이 선전한 올해 8월의 883만4000여명,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반도' '강철비2:정상회담'이 이끈 지난해 8월 791만여명이 각 연간 최대치였다. 결국 지난해 관객은 5952만 4000여명으로까지 급감했다. 2013년 이후 2억명 수준이었던, '좋았던 시절'은 이제 다시 오지 않는 것일까.

극장가가 다시 새로운 활기의 문을 활짝 연다. 새로운 슈퍼 영웅들이 그 유력한 안내자가 될 전망이다.

### ●백신 맞고 영화 보자

지난해 3월 이후 1년 7개월여 만에 이제 객석에서는 서로 띄어 앉지 않아도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하면서 극장에서도 다시 팝콘도 먹고, 심야영화도 볼 수 있게 됐다. 뉴스1

된다. 다시 달콤한 팝콘을 먹으며 심야 영화도 다시 볼 수 있다. 단, 마스크를 쓰는 등 최소한의 방역수칙을 잊으면 안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모두 접종하고 14일이 지난 관객이라면 영화 보기의 즐거움을 더 누릴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체계가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하면서 극장가도 새로 관객을 맞는다. 이날부터 영업시간 제한 없이 24시간 운영하며 '백신 패스관'을 도입, 운영한다. 이를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 완료 인증·증명이나 48시간

안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영화진흥위원회도 관객을 위해 1일부터 4주 동안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선착순으로 1인 2매씩 6000원 할인쿠폰도 준다.

### ●다양한 캐릭터 영웅들, 관객과 함께

극장가는 '11월1일'이 새로운 활력을 되찾는 출발점이 되길 바라고 있다. 3일 개봉하는 새로운 슈퍼 히어로들의 무대가 선봉에서 관객을 이끌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할리우드 스타 앤젤리나 졸리, 쉐라 헤이워 등과 마동석, 넷플릭스

'보디가드'로 낮익은 리처드 매든 등 등이 '노매드랜드'로 올해 아카데미 감독상을 거머쥔 콜로이 자오 감독과 손잡은 마블스튜디오의 '이터널스'이다.

기대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10월31일 오후 4시30분 현재 '이터널스'의 실시간 예매율이 무려 73%에 육박하고 있다. 마블스튜디오 슈퍼 히어로물의 팬덤이 워낙 두터운 데다 최근 시사회 이후 쏟아지는 언론과 평단의 호평도 관객 호기심을 키운다.

영화는 수천 년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은둔해온 불멸의 히어로들이 인류의 가장 오랜 적에 맞서며 펼쳐지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기존 마블 히어로물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으로 새로운 시대의 관객에 다가선다. 특히 '슈퍼 백인'은 물론 아시안·히스패닉·성 소수자·청각 장애인 등 다채로운 캐릭터가 갖은 경계를 허물며 다양성의 가치를 드러낸다.

CJ CGV 황재현 커뮤니케이션팀장은 "'이터널스'를 계기로 관객이 극장을 다시 찾을 것으로 보여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11월에는 월 관객이 1000만 명을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터널스'에서 길가메시 역 마동석은 이렇게 말한다. "모험한 번 해보지!" 영화보기의 즐거움을 온전히 만끽하게 할 새로운 '방역 관람'이 이제 실현 가능한 "모험"이 되기를 영화계와 극장가도 절실히 바라고 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 '놀면 뭐하니?'도 변화의 바람

김태호 PD 퇴사 앞두고 박창훈 PD 합류 유재석의 다양한 도전에서 팀 체제 변화 새 캐릭터 호평속 '무도 포맷 식사' 비판

MBC 예능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유재석 중심의 '1인 포맷'에서 팀 체제로 바꾼 데 이어 연출자 김태호 PD가 올해 연말 MBC를 퇴사하기로 하면서 제작진 교체도 앞두고 있다.

'놀면 뭐하니?'에는 8월21일부터 정준하·하하·신봉선, 러블리즈의 멤버 이미주 등이 출연하고 있다. 유재석이 트로트, 혼성그룹 등 다양한 아이템에 도전하는 과정에 집중해 데서 나아가 이들이 퀴즈대회, 야유회 등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탈바꿈했다. 박창훈 PD가 새롭게 연출진에 합류하면서 12월 말 퇴사하는 김태호 PD의 빈자리 채우기에 들어갔다.

이런 변화에 시청자 반응은 크게 엇갈린다. 미주·개그우먼 신기루 등 새 캐릭터를 발굴하고, '오징어게임'의 오영수 등 화제의 인물을 발 빠르게 섭외하며 호평을 받았다. 이에 힘입어 한국갤럽이 최근 발표한 '10월 한국인이 좋아하는 TV프로그램' 1위에도 올랐다.

하지만 "과거 '무한도전' 콘셉트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식상해졌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실시간 댓글창에는 "체제 변화 이후 재미가 떨어졌다"는 의견이 달리고 있다. 8%대(닐슨코리아)를 유지해온 시청률도 10월 30일 6.3%까지 떨어졌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이전처럼 특집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숏폼(짧은 이야기) 기획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각 인물의 개성을 활용해 아이템 확장을 시도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하재근 평론가는 "연출자 교체 등 변화가 위기가자 기회일 수 있다"면서 "1인 포맷의 신선한 시각을 되찾을 필요도 있다"고 짚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연예뉴스 HOT 3

### KBS '위아 히어로, 임영웅' 송년특집 콘서트



임영웅

가수 임영웅이 KBS에서 송년특집 콘서트를 펼친다. KBS는 "12월 말 임영웅의 단독 콘서트 '위아 히어로, 임영웅'(We're HERO, 임영웅)을 방송한다"고 밝혔다. 임영웅은 지난해와 올해 추석 콘서트를 연 가수 나훈아와 심수봉의 바통을 넘겨받게 됐다. 그는 "2021년 수고하신 국민 여러분들이 모두 영웅"이라며 "크고 작은 영웅들을 위해 특별한 공연을 선물해드리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10월31일 브랜드 평판 조사 회사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10월 브랜드 평판 순위에서 방탄소년단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 스태프 확진...'멜랑골리아' 첫 방한 주 연기

배우 임수정, 이도현이 주연하는 tvN 수목드라마 '멜랑골리아'가 제작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첫 방송을 한 주 연기했다. 10월31일 제작진은 "스태프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스태프·출연진 모두 관련 검사를 받았고, 추가 확진 스태프 3명을 제외하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보다 안정적인 제작을 위해 첫 방송을 3일에서 10일로 연기한다"면서 "방송 도중 시청 흐름이 꺾이는 것을 방지하고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 실탄 사고 볼드윈 "촬영장 총기 제한해야"

영화촬영 리허설 도중 실탄이 든 총으로 촬영감독을 쏘 숨지게 한 할리우드 배우 알렉 볼드윈이 사고 이후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다. 10월31일(한국시간) 미국 연예 전문매체 TMZ 등에 따르면 볼드윈은 "그(숨진 촬영감독 헬리나 허친스)는 내 친구였다"면서 비통한 심정을 드러냈다. 또 "1초만에 한번 일어나는 끔찍한 사고"라면서 "촬영장에서 총기류 사용을 제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볼드윈은 지난달 21일 미국 뉴멕시코주 산타페의 한 목장에서 영화 '리스트'를 촬영하다 소품용 총에서 실탄이 발사돼 촬영감독을 숨지게 했다. 현지 검찰은 형사 기소 등을 검토하며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편집 | 안도영·유진한 기자

## '막장드라마'가 몰려온다

29일 첫방 채널A '쇼윈도:여왕의 집' 송윤아-전소민 치열한 심리싸움 같은 날 방송하는 IHQ '스폰서' 한채영과 구자성·이지훈·지이수 각기 다른 욕망의 판관왕 스토리

'치정' 멜로와 불륜 소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SBS '펜트하우스' 시리즈의 인기를 이을 새로운 주자들이 줄줄이 안방 극장에 찾아온다. 각 드라마로 이미지 변신에 나서는 스타들에게도 시선이 쏠린다.

29일부터 방송하는 채널A '쇼윈도:여왕의 집'은 부잣집 딸 송윤아와 그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전소민이 그리는 미스터리 치정 멜로물이다. 송윤아가 남편 이성재의 여자인 줄도 모르고 의사매를 맺은 전소민의 정체에 다가가는 과정이 핵심이다. 제작진은 이들의 치열한 심리 싸움에 초점을 맞춰 서스펜스 요소를 부각한다.

'불륜녀' 캐릭터 전소민은 최근 예고편을 통해 이성재와 과감한 베드신 장면을 공개해 시선을 끌었다. SBS '런닝맨' 등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선보여온 발랄한 매력과는 상반된 캐릭터로 "색다른 연기를



배우 전소민이 '불륜녀' 캐릭터에 도전하는 드라마 '쇼윈도:여왕의 집'이 29일 첫 선을 보인다. 사진제공 | 채널A

펼쳐졌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같은 날 첫 방송하는 IHQ '스폰서'는 뷰티회사 CEO 한채영이 기혼자인 모델

지망생 구자성을 탐내면서 파국으로 치닫는 과정을 그린다. 이틀뿐 아니라 사진작가 이지훈, '라이징 스타' 지이수 등 극중 모든 캐릭터가 각기 욕망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드라마의 가제도 '욕망'이었지만, 이들이 저마다 야망을 이뤄줄 스폰서를 찾아 배신하고 공조하는 이야기를 위해 최근 '스폰서'로 바꾸기도 했다.

원조 '막장 대가'로 꼽히는 임성환(피비) 작가의 TV조선 '결혼작사 이혼작곡'도 내년 시즌3으로 돌아온다. 라디오 PD 박주미, DJ 이가령, 작가 전수경이 각기 바람난 남편들과 이혼하는 과정을 담은 시즌 1·2의 성훈, 이태곤 등 주요 출연자가 빠져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BTS, AMA 올해의 아티스트상 후보에

'괴물 신예' 올리비아 로드리고 테일러 스위프트 등과 후보에 내년 1월 그래미 수상 청신호

그들 방탄소년단이 처음으로 '2021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A)의 최고상인 '올해의 아티스트'(Artist Of The Year) 후보에 올랐다. AMA는 빌보드·그래미 어워즈와 함께 미국 3대 대중음악상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그래미 수상에도 청신호를 쫓는다.

방탄소년단이 21일(한국시간) 미국 LA 마이크로소프트 시어터에서 열리는 AMA에서 '올해의 아티스트' 부문에 노린다. 당대 최고의 팝스타들이 겨루는 상으로, 아시아 가수 최초로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괴물 신예' 올리비아 로드리고를 비롯해 테일러 스위프트, 더웬드, 아리아나 그란데, 드레이크와 경쟁한다.

방탄소년단은 최근 1년간 '다이너마이트'를 시작으로 '버터', '퍼미션 투 댄스'까지 3연속 미국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오르는 성과를 팝 음악계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페이버릿 듀오 오



방탄소년단

어 그룹'(Favorite Duo or Group)과 '페이버릿 팝송'(Favorite Pop Song) 등 3개 부문 후보에 지명되면서 4년 연속 시상식 무대에 서게 됐다.

또 내년 제64회 그래미 어워즈도 노릴 수 있게 됐다. 방탄소년단은 올해 한국가수 최초로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하지 못했다. 후보는 23일 발표된다. 미국 버라이어티는 "방탄소년단이 올해 획기적 성공으로 케이(K)팝이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인식을 지워버렸다"며 "올해의 앨범·노래" 등 "그래미 4대 본상인 '제너럴 필드'에 오를 것"이라 내다봤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 랩 뮤직 손잡은 씨엘, 글로벌 상륙작전

두아 리파 소속 글로벌 기획사 랩뮤직도 씨엘 팬덤 확장 선언 앨범도 세계 13곳 아이튠즈 1위

가수 씨엘이 글로벌 무대를 향한 새 행보에 나섰다. 최근 데뷔 12년 만에 첫 정규 앨범을 내고 미국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며 해외시장을 겨냥한 걸음을 다시 내딛고 있다.

10월31일 빌보드에 따르면 씨엘은 최근 미국 랩 뮤직과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다. 랩 뮤직은 두아 리파, 라나 델 레이, 노아 사이러스 등 팝스타들이 소속된 글로벌 매니지먼트사이다. 앞서 올해 8월 말 영국의 글로벌 에이전시 새틀라이트(Satellite) 414와도 계약했다. 국내 소속사 베리체리는 "더욱 적극적인 해외 활동을 위한 것임을 밝혔다."

빌보드는 "그룹 2NE1의 멤버로 경계를 허물며 명성을 떨친 씨엘이 독립아티스트로서 솔로 경력을 시작했다"면서 "장르를 넘나드는 스타일과 자유로운 언어 구사 능력 등"을 평가했다. 이어 웬디 웡 랩 뮤직 글로벌



씨엘

별 공동대표를 인용해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슈퍼스타 중 한 명"으로 씨엘을 가리켰다. 씨엘은 빌보드 인터뷰에서 자신이 그동안 "다양한 문화를 다변해왔다"면서 "아티스트 씨엘"과 "자연인 이채린" 사이 "균형을 찾아가는 메시지"를 최근 앨범에 담았다고 밝혔다. 10월20일 내놓은 정규앨범 '알파(ALPHA)'으로, "폭발적인 힙합부터 최첨단 일렉트로닉팝에 이르는 다양한 트랙"(빌보드)을 담은 음반은 씨엘이 2009년 데뷔 이후 12년 만에 자신의 이름으로 처음 내놓은 정규앨범이다. 전 세계 13개 지역 아이튠즈 1위에 올랐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